

## 드레이퍼리 의상의 미적 특성

안 선 희<sup>†</sup> · 이 명 희\*

동덕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패션디자인전공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 A Study on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Drapery Costume

Sun-Hee Ahn<sup>†</sup> and Myoung-Hee Lee\*

Major of Fashion Design, Dongduk University Education Cent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9. 1. 13. 접수일 : 2009. 4. 27. 수정완료일 : 2009. 6. 24. 게재확정일)

### Abstract

Drapery costume started with using one fabric to loosely wrap around one's body without using technical skills or needlework. Drapery becomes a beautiful and indeterminate form of pleated costume which determines the costume silhouette and serves as an essential component for the composition of artistic costum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drapery costume using literature review. The study methods include considerations of the formation process of drapery costume with the analysis of costume in pictures. For modern costume designs, the study analyzed the designer's dress with a focus on drapery forms, which appeared in the collections from 2001 to 2007. First, drapery costume contains the beauty of human body. Drapery costume reveals the smallest movement of the body. The beauty of drapes, which is naturally revealed along the curve of the body, and the pleats which form on the soft cloth create the beauty of body. Second, drapery costume has rhythmical beauty. Drapery pleats feature not only functions, but also unique formativeness that provides rhythmicity and regular or irregular direction effects by line. Third, drapery costume features elegant beauty. Bias cutting by draping can effectively express the elegant characteristics of the fabric. In making a piece of clothing, the composition method can express elegant beauty by covering up the shortcomings of the fitting and by fitting to the body line without cutting the fabric, or fitting it by bias cutting.

*Key words: drapery costume(드레이퍼리 의상), beauty of human body(인체미), rhythmical beauty(율동미), elegant beauty(우아미), drape(드레이프).*

### I. 서 론

복식은 인체와 긴밀하게 관련해서 성립하는 것으로

로 인간이 착용함으로써 형태를 이루며 인체를 기준으로 하는 입체물이다. 또한, 복식 조형은 시간적 변화를 갖는 공간적 조형 즉, 시공간 조형의 추구라 할 수 있으며,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입체적 실루엣을

<sup>†</sup> 교신저자 E-mail : ahnsh@dongduk.ac.kr

포함한다<sup>1)</sup>. 그러므로 복식은 신체와 더불어 하나의 이미지를 창조하며, 의복 창조는 감성과 심성을 전달하는 예술 표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sup>2)</sup>. 복식에서의 전체적인 외관은 복식과 어우러지는 형태감에 있으며, 그 형태감은 인체가 입고 움직이는데 있어 실용적인 측면과 예술적인 측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복식의 이러한 이중적 측면인 실용성과 예술성을 지닌 드레이퍼리 의복의 미적 형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드레이퍼리형 의복은 옷감으로 신체를 두르거나 감아서 입는 의복으로서, 옷감의 기교적인 재단과 봉제 없이 한 조각의 천으로 신체에 느슨하게 걸칠 수 있는 의복이다. 이러한 복식은 신체미와 움직임 때 나타나는 미를 천을 통하여 나타냄으로써 전체적인 비례와 균형의 조화미를 추구하게 된다. 또한, 평면적 구성의 단순함을 풍성한 천의 질감으로 표현하는 드레이퍼리의 주름장식으로 미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드레이퍼리는 아름답고 자유로운 부정형의 주름이 복식의 실루엣을 결정하며 예술적인 복식 구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드레이퍼리 의상의 선행 연구 내용을 보면, 고정원<sup>3)</sup>, 문인숙, 오춘자<sup>4)</sup>, 조신연<sup>5)</sup>, 함봉희<sup>6)</sup>의 연구에서는 복식사적 측면에서의 드레이퍼리의 역사적 변천을 다루었고, 김희균<sup>7)</sup>, 박현정<sup>8)</sup>, 유수경, 김의경<sup>9)</sup>의 연구에서는 드레이퍼리의 조형적 특성과 패턴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지금까지의 드레이퍼리 의복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역사적 고찰을 하거나 작품 제작 위

주의 내용이었으며, 드레이퍼리의 표현 방법과 미적 특성 분석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에 의하여 드레이퍼리의 표현 방법과 드레이퍼리 의상의 미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범위는 현대 복식 디자인 중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디자이너 작품으로서, 인터넷 사이트<sup>10)</sup>를 활용하여 오뜨꾸뛰르(haute couture) 레디 투 웨어(ready to wear) 컬렉션에서 나타난 드레이퍼리 형태의 디자인으로 제한하였다. 연구방법은 컬렉션의 디자이너 작품을 중심으로 칼라, 소매, 스커트, 팬츠, 원피스 드레스의 각 의복 유형별로 드레이퍼리 의상의 표현 방법을 조사하였고, 바이어스 재단에 의해 표현되는 카울, 플레어, 플라운스 형태를 포함하여 인체가 착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드레이프의 미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드레이퍼리 의상의 표현 방법은 복식 조형에 있어 다양한 각도로 연출되고 있으며, 무한히 재창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므로 본 연구는 복식미학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디자이너가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을 개발하며 복식 조형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드레이퍼리 의상의 표현 방법

### 1. 드레이퍼리 의상의 개념

드레이프(drape)는 소재가 옷으로 될 때 늘어지는

- 1) 板倉壽郎, *복식미학*, 이현숙 역 (서울: 경춘사, 1984), p. 129.
- 2) Marilyn J. Horn and Lois M. Gurel,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2), p. 312.
- 3) 고정원, "Drape를 중심으로 본 고대 이집트 복식과 고대 그리스 복식의 연관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4) 문인숙, 오춘자,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회화작품에 나타난 드레이퍼리(Drapery) 복식 연구," *충남대학교 충남생활과학연구지* 6권 1호 (1993), pp. 18-43.
- 5) 조신연, "고대 그리스 복식의 조형미를 응용한 복식 디자인 연구: Drapery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6) 함봉희, "드레이퍼리(Drapery)의 조형성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Art Deco Fashion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7) 김희균, "바이어스 드레이핑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8) 박현정, "마들렌느 비요네(Madeleine Vionnet) 패션디자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9) 유수경, 김의경, "마들렌느 비요네의 작품에 나타난 기하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0권 2호 (2002), pp. 763-780.
- 10) "Spring 2001- Spring 2007 Collection," *The Online Home of Vogue & W.* [retrieved 23~29 January 2007]; available from <http://www.style.com>

특성으로 디자인할 때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성질로 정의되며<sup>11)</sup>, 옷감이 모양 있게 늘어져 내린 상태를 말한다. 드레이프성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옷감에 적당한 정도의 탄력과 부드러움이 있어야 된다. 옷감이 인체에 입혀져 형태를 만들 때 주름을 만드는데, 드레이퍼리는 이 착의(着衣)에 의해 생기는 자연스럽고 우아한 주름을 말한다<sup>12)</sup>.

드레이퍼리는 의복의 형태가 인체에 입혀져야 그 조형적 형태가 보여 지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입는 방법에 따라 디자인에 변화를 주는 미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감아 입어서 형성되는 부정형의 드레이퍼리에 장식적 효과가 더해져야만 미적 가치를 더해 줄 수 있는데, 의복의 디테일에 속하는 러플, 플라운스 등이 이에 속하며, 바이어스 재단에 의해 주름지는 형태도 드레이퍼리에 속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드레이퍼리의 형태적 의미에서 늘어지는 부정형의 주름으로 이루어진 의상의 미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드레이퍼리의 형태는 주름의 늘어지는 효과와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세련되고 우아한 미를 창출해 낼 수 있다. 특히 구성법에 의한 표현 방법은 3차원적인 형태를 이루며, 다양한 장식적 효과로 복식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된다.

## 2. 드레이퍼리 의상의 표현 방법

### 1) 칼라

칼라는 넥라인 범주까지 포함하며, 표현 방법은 카울 드레이프 넥라인, 카울 칼라, 카울 후드 등이 드레이퍼리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카울 드레이프 넥라인은 중세의 카톨릭 수도사의 두건 모양인 카울을 등에 늘어뜨리면 느슨한 몇 개의 주름이 생기는 것과 흡사한 물결무늬 형이 깃 부분에 나타난 넥라인을 말하며, 카울 칼라는 어깨에서 시작되는 커다란 원형으로 드레이프가 잡힌 형태이며<sup>13)</sup>, 이 주름이 잡혀 늘어진 칼라는 바이어스로 구성된다.

〈그림 1〉은 지방시(Givency)의 작품으로 카울 드레이프 넥라인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깊게 파인 넥라인은 여성의 가슴부분을 따라 곡선의 흐름으로 조화를 이루었으며, 이브닝 드레스의 우아함이 표현된 드레이퍼리를 볼 수 있다. 측면의 배색을 다르게 하여 카울의 흐름을 강조하였다. 〈그림 2〉는 샤넬(Chanel)의 작품으로 카울 드레이프를 심플하게 강조한 디자인으로 드레시하면서 우아한 여성미를 표현하며, 부드러운 새틴 질감으로 드레이퍼리 효과를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그림 3〉은 다니엘 스컷(Danielle Scutt)의



〈그림 1〉 Givenchy(Spring 2002, www.style.com).



〈그림 2〉 Chanel(World Fashion Designer Story, 2005, p. 31).



〈그림 3〉 Danielle Scutt (Spring 2007, www.style.com).



〈그림 4〉 Christian Lacroix (Spring 2005, www.style.com).

11)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Dictionary of Fashion*, 2nd ed. (New York: Fairchild Pub. Inc, 1998), p. 169.

12) 패션전문자료사전 편찬위원회, *Fashion 전문자료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소, 1997), pp. 186-187.

13) Ibid., pp. 1106-1107.

작품으로 플라운스 칼라의 장식적인 드레이프 형태로서 어깨에서 가슴을 지나는 주름의 유동성과 바이어스 재단으로 이루어진 드레이퍼리의 효과를 잘 볼 수 있다. <그림 4>는 크리스찬 라크루와(Christian Lacroix)의 작품으로 앞여밈의 플라운스로 드레이퍼리를 표현하였는데, 여밈의 끝까지 플라운스의 울동미가 신체 라인을 따라 내려오는 시각적 효과를 강조하여 여성미를 강조해주고 있다.

칼라에서의 드레이퍼리는 바이어스 재단에 의해 대부분이 이루어지며, 카울 네크라인이나 플라운스 칼라의 유동적인 흐름을 통해 여성적인 인체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 소매**

소매의 드레이퍼리는 부드럽거나 비치는 소재에 의해 주로 구성된다. <그림 5>는 엘리에 사브(Elie Saab) 작품으로 이집트의 칼라시리스와 그리스의 키톤을 연상시킨다. 어깨, 네크라인에서부터 드레이프가 만들어지며, 허리와 가슴에서 고정되어 접혀져 내려오는 디테일은 키톤에서 보여지는 아포티그마 형태와 드레이퍼리의 우아함을 나타낸다. <그림 6>은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의 작품으로 케이프의 구성으로 한 장의 천을 인체에 걸쳐 허리에서 한번 고정하고 늘어지는 드레이프로 소매의 형태가 인체와 함께 감겨 인체의 선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면서 인체미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림 7>은 끌로에(Chloe)의 작품으로 라글란 소매는 개더가 풍성하게 잡혀 드레이프진 소매의 입체적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바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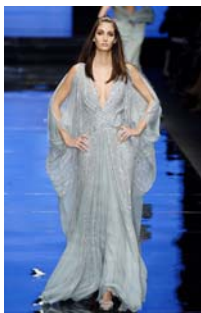
를 연장하여 풍부한 드레이퍼리 주름을 표현하였다.

<그림 8>은 발렌티노(Valentino)의 작품으로 이집트의 칼라시리스의 구성법과 같이 한 장의 천으로 주름진 곳을 잡아 올려 소매의 형태를 이루면서 드레이퍼리 효과를 나타냈다. 드레이프진 소매는 램 스커트의 드레이프와 코디네이션 되어 우아한 여성미를 보여준다. <그림 9>는 엠마누엘 응가로(Emanuel Ungaro)의 작품으로 네크라인에서 연장되어 이루어진 소매 자락은 인체의 동작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드레이퍼리 효과를 표현해 주며, 인체와 복식 사이에 형성되는 조형적 공간에서 울동미를 나타낸다.

이상에서 볼 때 소매의 드레이퍼리는 바디스의 연장선으로 주름의 표현이 다양하게 연출될 수 있으며, 인체의 움직임에 따른 울동미를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어깨에서부터 형성되며 구성되는 주름은 소매단선에서 바닥에 끌릴 정도로 연장되어 드레이퍼리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다.

**3) 스커트**

스커트에서 드레이퍼리를 구성할 때는 한쪽에서 주름을 잡아 사선방향으로 늘어뜨린 드레이프드 스커트(draped skirt)가 주 형태를 이루면서 드레시한 스커트 디자인으로 응용된다. <그림 10>은 나르시소 로 에리즈(Narciso Roeriguez)의 작품인데, 헹커치프 헴 라인으로 구성된 스커트이다. 드레이프성이 좋은 쉬폰 여러 조각이 겹겹이 불규칙한 밑단선을 만들면서 드레이퍼리 효과가 우아하게 표현되었으며, 얇은 소재의 성질로 인체에 감기는 듯한 유동성의 효과가 증



<그림 5> Elie Saab (Spring 2007, www.style.com). <그림 6> Jean Paul Gaultier(Spring 2007, www.style.com). <그림 7> Chloe(Fall 2006, www.style.com). <그림 8> Valentino (Fall 2006, www.style.com). <그림 9> Emanuel Ungaro(Spring 2002, www.style.com).



<그림 10> Narciso Roeriguez (Fall 2004, www.style.com).



<그림 11> Armani Prive (Fall 2006, www.style.com).



<그림 12> Danielle Scutt (Spring 2007, www.style.com).



<그림 13> Emanuel Ungaro (Spring 2001, www.style.com).

가되었다. <그림 11>은 아르마니 프리베(Armani Prive)의 작품으로 옆선에서 카울 드레이퍼리를 응용하였다. 바이어스 방향으로 깊게 접힌 카울로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며, 우아한 형태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는 다니엘 스컷의 작품으로 랩 스커트에서 플라운스 장식을 표현하였다. 플라운스는 바이어스 컷으로 이루어져, 안과 겉의 색을 다르게 하여 울동감과 함께 흐르는 듯한 곡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그림 13>은 엠마누엘 응가로의 작품으로 한 장의 천으로 둘러 입은 랩스커트의 형태이다. 고정시켜 늘어뜨린 자락의 드레이퍼리가 왼쪽에서 사선의 여러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리를 노출시킴으로써 섹시한 인체미를 표현하였다.

스커트의 드레이퍼리는 인체의 움직임 방향에 의해 주름의 다양성이 효과적으로 표현되는 아이템으

로 바이어스 단이나 카울, 페그, 플라운스의 드레이퍼리 효과를 통해 여성적인 인체미를 보여준다. 또한, 헴 라인의 불규칙한 울동성은 울동적인 미를 시각적으로 잘 나타낸다.

4) 팬츠

팬츠는 퀴로트 스커트와 같이 입체적인 주름을 넣어 hips를 과장하게 보이도록 만들면서, 드레이퍼리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 <그림 14>는 이브생 로랑(Y. S. Laurent)의 작품으로 도련이 넓은 플레어 팬츠이다. 팬츠 형태이지만 스커트 이미지로 표현된 디자인이며, 얇은 소재로 만들어 드레이퍼리의 우아한 미를 잘 나타냈다. <그림 15>의 에밀리오 푸치(Emilio Pucci)의 작품은 하렘팬츠의 형태로 바지 끝단에서 주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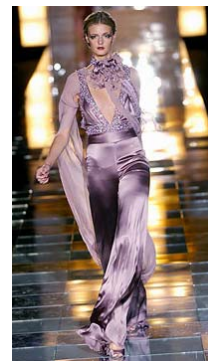
<그림 14> Y. S. Laurent (Spring 2001, www.style.com).



<그림 15> Emilio Pucci (Spring 2004, www.style.com).



<그림 16> Gorgio Armani (Spring 2003, www.style.com).



<그림 17> Elie Saab(Fall 2004, 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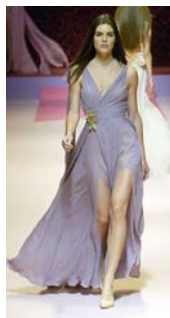
모아 밴드로 고정시켜 드레이프의 형태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드레이퍼리 형태는 풍부하지 않지만 허리에 서부터 힙으로 늘어지는 주름을 발목 가까이에서 잡아 고정시켜 드레이퍼리의 공간감을 형성하였다. <그림 16>은 조르지오 아르마니(Gorgio Armani)의 작품으로 앞 중심에 주름을 모아 셔링으로 드레이프를 표현함으로써 주름 방향이 좌, 우 골반 부분으로 퍼지게 함으로써 여성적인 인체미를 강조하였다. <그림 17>은 엘리에 사브의 작품으로 늘어지는 소재의 풍부한 주름으로 이루어진 스커트형 팬츠로서 헴 라인의 움직임으로 드레이퍼리의 울동미를 잘 보여주며, 움직임 때마다 휘감기는 자락에 의해 미적 효과를 높여 준다.

팬츠 드레이퍼리 의상은 플레어 팬츠, 하렘 팬츠 형태 등으로 드레이퍼리를 형성하며 주름이 인체 위에서 볼륨감을 갖게 되고, 스커트에서의 주름보다 수직으로 이루어지므로 유동적인 흐름을 잘 나타내며, 움직임에 따른 방향성을 표현할 수 있어 드레이퍼리의 다양한 특성을 연출할 수 있다. 또한, 하의는 상의에서보다 더 조형적 공간성을 갖고 인체의 움직임과 함께 우아하고 세련된 울동미를 표현할 수 있다.

5) 원피스 드레스

원피스 드레스의 드레이퍼리는 더욱 얇고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허리선에 절개선을 둔 것과 절개선 없이 구성된 것이 있다. <그림 18>의 크리스

찬 디오르(Christian Dior) 작품에서는 페그 탑 스타일의 주름이 하이웨이스트로 올라가 드레이프지는 드레스로 부드러운 소재가 늘어지면서 우아한 주름을 표현하여 언밸런스한 형태미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옆으로 길게 늘어뜨린 장식 띠는 중세의 로뎀을 연상케 하면서 미적 효과를 증가시킨다. <그림 19>는 블루마린(Blumarine)의 작품으로 상의의 개더가 허리선에서 모아져 방사선으로 퍼져 허리선 위로는 개더로 처리되고, 허리선 아래로는 플레이지는 드레스로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라 할 수 있다. 드레스의 밑단까지 드레이퍼리가 울동적으로 형성되면서 긴 트임을 주어 여성의 섹시한 인체미를 잘 나타낸다. <그림 20>은 엘리에 사브의 작품으로 개더와 플레이가 조화된 디자인이며, 카울 네크라인을 이용하여 드레이퍼리를 표현하였다. 하의는 수평선과 사선방향으로 언밸런스하게 구성된 개더 형태와 함께 볼륨감을 갖고 넓게 퍼지는 헴 라인의 풍부함은 인체가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인체미와 울동미가 함께 보여 준다. <그림 21>은 크리스찬 라크루와 작품으로 가슴 부분에는 한 장으로 트위스트 된 주름이 있고, 하의는 페그 탑 스타일 형태의 주름이 표현된 드레스이다. 쉬폰이 지닌 소재의 부드러움으로 옷감이 인체에 감겨 나타나는 여성미를 보여주며, 바이어스 재단의 드레이핑 기법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그림 22>는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의 원피스 드레스로 한 장의 천을 몸에 두른 듯 하지만 앞 중심 허리선에서 모아지는 드레이프



<그림 18> Christian Dior (Spring 2007, www.style.com). <그림 19> Blumarine (Spring 2007, www.style.com). <그림 20> Elie Saab (Spring 2005, www.style.com). <그림 21> Christian Lacroix(Fall 2006, www.style.com). <그림 22> Yohji Yamamoto(Fashion: The Collection of the Kyoto Costume Institute, 2002, p. 668).

주름으로 소매의 형태가 잡히고, 인체의 선을 따라 흐르는 방사선의 방향이 우아하게 겹쳐져 표현되었다.

원피스 드레스의 드레이퍼리 의상은 상의와 하의에서 표현된 부드러운 주름과 플레어의 형태가 일정하게 규칙적 혹은 불규칙적으로 반복되어 리듬감을 나타낸다. 주름의 방향은 수직선이나 사선의 형식으로 길게 늘어지며, 우아한 선의 흐름과 율동감을 드레스에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 III. 드레이퍼리 의상의 미적 특성

드레이퍼리형 복식은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공간감으로 인해 인체미의 특성이 여러 각도로 나타나며, 입체적 주름이 자연스럽게 반복되므로 율동미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드레이퍼리 의상은 대부분 부드러운 소재에 의해 유동적인 주름이 곡선으로 형성되므로 우아한 이미지가 잘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복식을 중심으로 드레이퍼리 의상의 미적 특성을 인체미, 율동미, 우아미로 나누어 그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 1. 인체미

복식은 인체에 착용되어야 그 실루엣과 디자인의 형태미가 표현될 수 있으며,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되어 나타나는 조형적 아름다움이 3차원적 공간을 이루면서 인체미와 복식미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인체는 복식의 중요한 표현대상이며 시대적으로 인체에 대한 미의식의 반영은 복식의 형태를 결정하며 변화되어 왔다. 현대 패션은 인체 조형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 외양은 실루엣의 결정과 신체가 미의 표준으로서 적절하게 결정될 때 만족된다<sup>14)</sup>. 드레이퍼리는 인체미를 표현하는 현대복식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옷감에 의해 인체의 자연미를 나타내며, 인체의 선을 그대로 드러내 주어 인체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표현할 수 있다.

드레이퍼리의 인체미는 고대 복식에서 잘 나타나며 이집트의 칼라시리스와 하이크, 그리스의 키톤,

히마티온, 클레미스, 로마 시대의 토가에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인체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인체미를 표현하는 복식은 인체의 곡선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드레이프의 미와 부드러운 천에 생기는 주름이 인체가 착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드레이퍼리의 주름은 신체 위에 착용되었을 때에 형성되는 수동적인 공간임과 동시에 신체의 실루엣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조형미를 창조하는 능동적인 조형적 공간으로 작용한다.

현대 패션에서는 한 장의 직물을 이용하던 기존의 드레이퍼리의 구성방식을 확장시켜 부분적인 구성요소나 장식적인 요소로 이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패션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3차원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sup>15)</sup>. 192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 드레이퍼리를 표현하는 구성법으로 바이어스 드레이핑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당시 유행의 조류와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의복이 신체 선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경향을 띄게 하였다. 20세기 초에 몇몇의 디자이너들은 마네킨 위에 직접 원단을 걸고 두르면서 그들만의 디자인을 창조하였다(그림 23). 비오네는 이러한 재능이 뛰어났으며, 바이어스 재단을 이용하여 인체 움직임의 아름다움을 복식으로 표현하려 하였고(그림 24)<sup>16)</sup>, 인체의 체형을 고려하여 복식을 보다 자유롭고 풍요롭게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sup>17)</sup>.

드레이퍼리는 인체와 조화를 이루면서 신체를 드러내어 인체미를 잘 표현해 주는데, 인체미를 표현할 때에 복식은 신체에 밀착되어 신체의 윤곽을 나타내면서 성적 특징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앞 장에서 다룬 디자이너 작품을 통해 나타난 드레이퍼리의 인체미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는 소매의 재단을 따로 하지 않으면서 한 장의 천을 허리와 가슴에서 묶어 자연스럽게 신체 윤곽이 드러나게 하면서 소매의 형태가 부분적인 노출과 함께 드레이프를 만들면서 인체미를 나타내준다. 주름의 수직선은 인체의 선을 따라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인체가 움직이는 방향에 의해 수직방향으로 구성되어 여성 인체의 곡선을 아름답게 보여준다.

14) 김미영, "댄스 스포츠 의상의 조형성과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4권 6호 (2006), p. 1050.

15) 양희영, 양숙희, "현대 패션에 나타난 주름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7권 1호 (2007), p. 138.

16) Herald Jacque, *Fashion of Decade: 1930s*, (London: B.T. Batsford Ltd., 1991), p. 47.

17) 유수경, 김의경, op. cit., p. 164.

〈그림 6〉은 이집트의 케이프 형태로 어깨에 둘러하이 웨이트 선에 고정하여 드레이프가 늘어지면서 마치 소매와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비대칭적이고 유연한 드레이프가 신체를 따라 흘러내리면서 신체 윤곽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주름 분량이 앞쪽으로 집중되어 의복을 착용하지 않고 신체에 걸쳐 보이는 듯한 이미지를 제공하여 인체의 선을 따라 움직이는 유연한 여성의 인체미를 부드럽게 보여준다. 〈그림 7〉은 몸판과 연결된 라글란 소매로 개더가 풍성하게 잡혀 드레이프진 소매의 입체적 공간을 이루며 개더의 주름은 드레이퍼리 형식에 의해 바디스와 함께 연장되었는데, 부드러운 주름 밑의 토루소와 팔 윤곽의 인체미를 볼 수 있다. 〈그림 8〉은 이집트의 칼라시리스의 구성법과 같이 한 장의 천으로 주름진 곳을 잡아 올려 소매의 형태로 드레이프진 효과를 잘 나타내며 랩 스커트의 주름과 조화되어 여성스러운 인체미를 보여준다. 〈그림 13〉은 다리의 움직임에 자유롭고 과감하게 하기 위해 비대칭적인 주름의 형태를 허리선에서 고정하여 늘어뜨렸는데, 힙 선을 따라 흘러내리는 사선의 흐름이 다리의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면서 여성 인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었다.

이상에서 볼 때 드레이퍼리 의상은 부드러운 천에 의해 주름을 기교적으로 표현하여 신체 윤곽과 신체의 미세한 움직임을 드러냄으로써 인체미를 표현하였다. 또한, 드레이퍼리는 한 장의 천이 갖고 있는 단순함을 인체의 흐름에 맞게 인체 위에서 적절한 위치에 고정시키면서 천의 방향에 따라 늘어짐을 응용하여 주름을 나타내면서 부분적인 노출이나 인체의 움직임을 통해 인체의 미적 효과를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 2. 율동미

드레이퍼리 의상은 주름지는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율동적으로 흐르는 주름은 율동의 미, 즉 리듬(rhythm)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주름의 반복에 의한 효과는 신체 위에서 방향을 강조하는 효과를 지니며 동시에 탄력 있고 역동적

인 리듬감을 연출한다. 리듬감은 연속적으로 되풀이되는 율동감을 느끼게 하는 원리로 움직임과 연관된다. 율동은 흐르는 듯하게, 또는 분절적으로 표현되며 반복이나 유사함을 지니게 함으로써 그 효과를 나타낸다. 의상에서의 율동은 의복 착용으로 나타나는 인체의 움직임에 의한 율동과 의복의 구성이나 디테일에 의한 의상 자체의 율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18)</sup>.

드레이퍼리의 주름은 율동감에 의한 기능성과 함께 독특한 조형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름에 의해 표현되는 선의 방향에 따라 형성되는 복식의 실루엣이 여러 각도로 다르게 표현된다. 또한, 주름은 3차원적으로 율동적인 공간을 만들며, 주름이 형성되는 부분에는 인체와의 공간이 만들어져 율동감을 주면서 주름의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진 형태에서 율동미를 볼 수 있다. 1920년대부터 비오네는 환상적인 요소가 깃들여진 벨벳, 실크 쉬폰, 비치는 타프타, 툴(tulle) 등을 사용하여 마치 천이 율동적인 육체의 연장인 양 원단의 성질을 최대한 살려주면서 율동적인 율동미를 표현하였다<sup>19)</sup>(그림 25). 앞서 설명한 드레이퍼리 의상에서 율동미가 두드러진 작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는 플라운스 칼라가 어깨에서 흐르는 듯한 물결 모양으로 불규칙하게 주름져 의복의 각 부분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합쳐져서 율동적인 흐름으로 지각된다. 플라운스가 부착되어 주름을 형성하며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수직방향으로 드레이프가 생기는 부분이 마치 파도와 같이 율동하며 주름의 형태와 굴곡이 크게 변화되는 스타일이다. 〈그림 9〉의 경우, 어깨에서 연결되어 바닥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율동감을 조성한다. 얇고 비치는 소재의 중첩으로 인해 생기는 환상적인 아름다움은 실질적인 움직임을 강조하는 트리밍이며 시각적인 움직임의 극대화에 기여하는 요소로서 공간성을 부여해줌과 동시에 율동미를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0〉은 헹커치프 헴 라인으로 구성된 스타일로서 드레이프성이 좋은 쉬폰 여러 조각을 겹겹이 구성하여 불규칙한 밑단 선을 이룸으로써 드레이퍼리 효과가 다양하게 표현되도록 하였다. 인체에

18) 김미영, op. cit., p. 1049.

19) 김희균, op. cit., pp. 47-50.



감기는 듯한 유동성은 얇은 소재의 성질로 더욱 효과가 증대되었다. <그림 12>는 램 스킷트의 플라운스가 바이어스 컷으로 이루어졌으며, 안과 겉의 색을 다르게 하여 플라운스의 율동감을 굽이치듯이 표현하였다. <그림 17>은 늘어지는 소재의 풍부한 주름으로 구성된 팬츠로서 넓은 헴 라인으로 드레이퍼리의 율동미를 잘 보여주며 움직일 때마다 휘감기는 형태에 의해 미적 가치를 높여준다.

이상에서 볼 때 드레이퍼리의 율동미는 플라운스와 플레어의 주름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인체 위에서 볼륨감을 갖고 직선과 사선의 주름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드레이퍼리 의상은 주름을 반복하여 나타냄으로써 리듬감을 적절히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헴 라인의 불규칙성으로 나타나는 유동성도 율동미의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할 수 있다.

### 3. 우아미

드레이퍼리는 복식의 구성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주름의 조형적인 선에 의해 우아한 아름다움이 표현된다. 우아미의 기본적인 특색은 형태의 세밀함이며 유연하고 자유로운 곡선으로 우아한 이미지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우아미의 미적 가치는 고급소재, 단정하고 정숙하여 격식에 어울리는 품위성, 도회적이며 섬세하고 기교의 성숙함이 있는 세련성, 섬세하고 감미로운 매력이 있는 여성성, 그리고 복식

내에서 각 부분들이 상호 유기적인 통일성을 지닌 조화성이라 할 수 있다<sup>20)</sup>. 드레스를 바이어스 방향으로 착용할 때 사선 솔기의 동적 이미지를 구현함과 동시에 바이어스 재단에 의한 유연한 곡선으로 드레이퍼리의 우아미가 표현된다(그림 26). 바이어스 재단에 의한 드레스는 아름다운 여성의 신체 선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고, 부드러운 소재의 사용으로 드레이프 곡선의 우아함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네크라인 부분이 바이어스로 되어 부드럽게 드레이프지는 카올 네크라인과 원단의 각을 그대로 사용한 헹커치프 헴 라인은 세련되고 섬세한 우아미를 나타낸다(그림 27). 앞 장에서 설명한 디자이너 작품에서의 우아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8>의 작품은 페그의 주름이 하이웨이스 트로 올라가 드레이프지는 드레스로 풍성하고 볼륨감 있는 구성을 통해 여성미를 강조하면서 드레이퍼리의 우아함이 장식적 효과와 함께 잘 표현되고 있다. <그림 20>의 경우 상의의 개더가 허리선 아래 부분에 모여져 의복 공간이 촘촘하게 접힌 개더로 구성되어 고귀한 느낌을 주면서, 복잡하고 물결치는 듯한 파동과 함께 유기적인 흐름이 나타나 이브닝 드레스의 여성적인 우아함을 특징있게 표현하고 있다. <그림 21>은 가슴에서 트위스트 되면서 방사선 방향의 드레이프 주름을 표현함과 동시에 저명도의 비치는 소재를 사용하여 여성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고 우아



<그림 23> Madam Gres (Herald Jacque, *Fashion of Decade: 1930s*, 1991, p. 46).



<그림 24> Madeleine Vionnet(Herald Jacque, *Fashion of Decade: 1930s*, 1991, p. 47).



<그림 25> Vionnet(www.vionnet.com).



<그림 26> Sophia Kosalaki(*Color Me Chic*, 2007).



<그림 27> Madeleine Vionnet(*Anniversary Issue W*).

20) 김미영, op. cit., p. 1053.

하게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2>는 앞 중심의 허리 부분에서 모아지는 주름이 밑단 끝까지 방사선 방향으로 늘어지면서 겹쳐진 드레이퍼리가 다층적이므로 기교적이면서 우아한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드레이퍼리 의상의 인체미, 율동미, 우아미의 미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드레이퍼리의 주름은 3차원의 공간적 형태로 표현되면서 인체의 움직임에 의해 미적 특성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드레이퍼리 의상은 인체를 따라 자연스러운 선이 흐르면서 인체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고, 공간성과 함께 수직선이나 사선의 형식으로 길게 늘어지는 형태에서 율동미를 표현할 수 있으며, 주름의 방향과 겹쳐짐이 섬세한 곡선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여성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창안한다고 할 수 있다.

#### IV. 결 론

드레이퍼리형 복식은 옷감의 기교적인 재단과 한 조각의 천을 신체에 느슨하게 걸침으로써 의복 형태를 이루며, 이러한 복식은 움직일 때 천을 통하여 표현되는 율동미와 신체미를 나타낸다. 또한, 평면적인 천을 사용하여 풍성한 드레이퍼리 주름장식을 만들어서 입체적인 미적 효과를 표현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부정형의 주름을 사용하여 복식의 우아한 실루엣을 구성하게 한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컬렉션에 나타난 디자이너의 작품을 대상으로 드레이퍼리 의상의 표현 방법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미적 특성을 현대복식에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상·하의와 원피스 드레스의 드레이퍼리 표현 방법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의 드레이퍼리 의상에서의 표현은 카울과 플라운스가 주류를 이루었고, 칼라는 바이어스 재단에 의해 대부분 구성되고 있었다. 소매의 구성 방법은 고대의 키튼, 칼라시리스 등의 복식에서 보여 지는 드레이퍼리 방식에 의한 구성법이 이용되었으며, 한 장의 천이 갖고 있는 단순함을 인체의 흐름에 맞게 한 위치에 고정시키면서 천의 방향에 따른 늘어짐을 응용하였다. 하의 드레이퍼리 의상은 플라운스와 플레어, 페그 탑 스타일의 주름으로 드레이퍼리를 형성하며, 사선의 흐름 방향으로 인체 위에서 볼륨감을 지니면서 주름 형태를 이루었다. 헴 라인의 불규칙적인 율동성과 율동감을 미적 효과를 높혀 주며 시각적으로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강조되었다. 또한, 허리선에서 떨어지는 바이어스 재단법을 사용함으로써 상의에서보다 더 조형적인 공간성을 갖고 인체의 움직임을 잘 드러내면서 섬세하고 우아한 여성미를 표현해 주었다. 원피스 드레스의 드레이퍼리 의상은 상의나 하의에서 표현된 플라운스, 플레어, 개더 등을 이용하여 수직선이나 사선이 길게 늘어지게 하면서 부드러운 선의 흐름을 드레스에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드레이퍼리 의상의 미적 특성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드레이퍼리 의상은 인체미를 지닌다. 드레이퍼리 의상은 인체와 조화를 이루면서 신체 윤곽을 잘 드러내어 인체미를 나타내며, 의상이 신체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드러내 준다. 또한, 드레이프의 방향과 부드러운 천에 의해 생기는 주름이 인체의 형태미를 다양하게 드러나게 한다.

둘째, 드레이퍼리 의상은 율동미를 지닌다. 드레이퍼리 주름은 기능성과 함께 율동적인 방향 효과 등

<표 1> 드레이퍼리 의상의 미적 특성에 따른 디자인 특징

미적 특성	디자인 특징
인체미	주름이 3차원의 공간적 형태로 표현되면서 인체 선을 드러냄. 부분적인 신체 노출. 주름이 인체에 밀착되어 신체 윤곽을 나타냄. 인체선의 흐름을 따라 이루어진 플리츠. 인체의 곡선을 따라 부드러운 천이 주름으로 휘감기는 드레이퍼리.
율동미	주름의 반복에 의한 리듬감. 디테일의 한 부분으로 재단되어진 플라운스. 비치는 소재가 층층이 겹으로 이루어져 율동성을 나타냄. 수직선이나 사선 방향으로 늘어지는 드레이퍼리.
우아미	바이어스로 재단되어 인체에 피팅되어진 카울. 섬세하고 부드러운 선의 흐름. 자유로운 곡선을 유연하게 표현해주는 드레이퍼리.

독특한 조형성을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주름에 의해 드레이퍼리의 외관이 달라지므로 유동적인 율동미를 나타낸다.

셋째, 드레이퍼리 의상은 우아미를 지닌다. 드레이핑에 의한 바이어스 커팅은 의복을 구성하기 위하여 평면적인 원단을 인체 형태에 맞추어가며 주름을 이루는 구성법에 의하여 의복 형태가 이루어지므로 섬세하고 기교적으로 늘어지는 주름은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결론적으로 드레이퍼리 의상은 인체를 따라 자연스러운 선이 흐르면서 인체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공간성을 가지며 수직선이나 사선의 형식으로 길게 늘어지는 형태에서 율동미를 표현할 수 있으며, 주름의 방향과 겹쳐짐이 우아한 곡선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아름다움을 창안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정원 (2002). “Drape를 중심으로 본 고대 이집트 복식과 고대 그리스 복식의 연관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 (2006). “댄스 스포츠 의상의 조형성과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4권 6호.
- 김희균 (2000). “바이어스 드레이핑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인숙, 오춘자 (1993).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회화 작품에 나타난 드레이퍼리(Drapery) 복식 연구.” 충남대학교 충남생활과학연구지 6권 1호.
- 박현정 (2000). “마들렌느 비요네(Madeleine Vionnet) 패션디자이너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희영, 양숙희 (2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주름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7권 1호.
- 유수경, 김의경 (2002). “마들렌느 비요네의 작품에 나타난 기하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0권 6호.
- 조신연 (1998). “고대 그리스 복식의 조형미를 응용한 복식 디자인 연구: Drapery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패션인사이트(주) (2005). *World Fashion Designer Story*. 서울: 주간 디자인신문.
- 패션전문자료사전 편찬위원회 (1997). *Fashion 전문자료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 함봉희 (2004). “드레이퍼리(Drapery)의 조형성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Art Deco Fashion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板倉壽郎 (1993). *복식미학*. 이현숙 역. 서울: 경춘사.
- Anniversary Issue W: 30 Years of Fashion [retrieved 1~3 January 2008]. available from <http://www.blog.naver.com/qnnp486/60051375720>
- Calasibetta, Chrotte Mankey (1998). *Dictionary of Fashion*. 2nd ed. New York: Fairchild Pub. Inc.
- Color Me Chic. (2007 [retrieved 14 February 2007]). available from <http://colormecheic.blogspot.com/2007/02/vionnet.html>
- Fashion: The Collection of the Kyoto Costume Institute* (2002). Tokyo: Taschen GmbH.
- Horn, Marilyn J. and Lois M. Gurel (1982).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 Jacque, Herald (1991). *Fashion of Decade: 1930s*. London: B.T. Batsford Ltd.
- "Spring 2001- Spring 2007 Collection" [retrieved 23~29 January 2007]. The Online Home of Vogue & W. available from <http://www.style.com>
- Vionnet (2007 [retrieved 10 February 2007]). available from <http://www.vionnet.com>